

현장시선



성 상 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을 때 미리 준비한 우산 하나가 주는 안도감은 매우 크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경영 환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란우산’ 제도는 우리 민생 경제의 현장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을 지속하거나 전환하는 결정은 깊은 고민 끝에 찾아온다. 고정비와 금융비용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 확대 필요

을 정산하고 나면 정작 본인의 미래를 위해 남는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매달 직원 급여와 원자재 대금, 임대료를 우선 챙기다 보면 노후 준비는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이로 인해 경영 악화나 은퇴 시점이 다가왔을 때 노후 대비와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제주 지역 골목상권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려 한층 더 무거워졌다. 특히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제주의 경우,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더 크다. 이제 소상공인의 위기나 폐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차원의 구조적 리스크로 바라보아야 한다.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이 없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정이

지역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공제 제도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 등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활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무엇보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 돼준다.

소상공인의 안정은 곧 지역 경제의 활력과 직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영세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행정적·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것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다. 실제로 전체 소

기업·소상공인 816만명(2023년 기준)중 노란우산 가입률은 22.73% 수준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가입률이 20.37%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지원 중인 희망장려금의 규모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매 순간 스스로 최선의 답을 찾아내야 하는 과정이다.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새벽 일찍 불을 밝히며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이후의 삶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소기업·소상공인과의 든든한 ‘희망동행’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설

국제행사 제주 개최 불구 수수방관 ‘눈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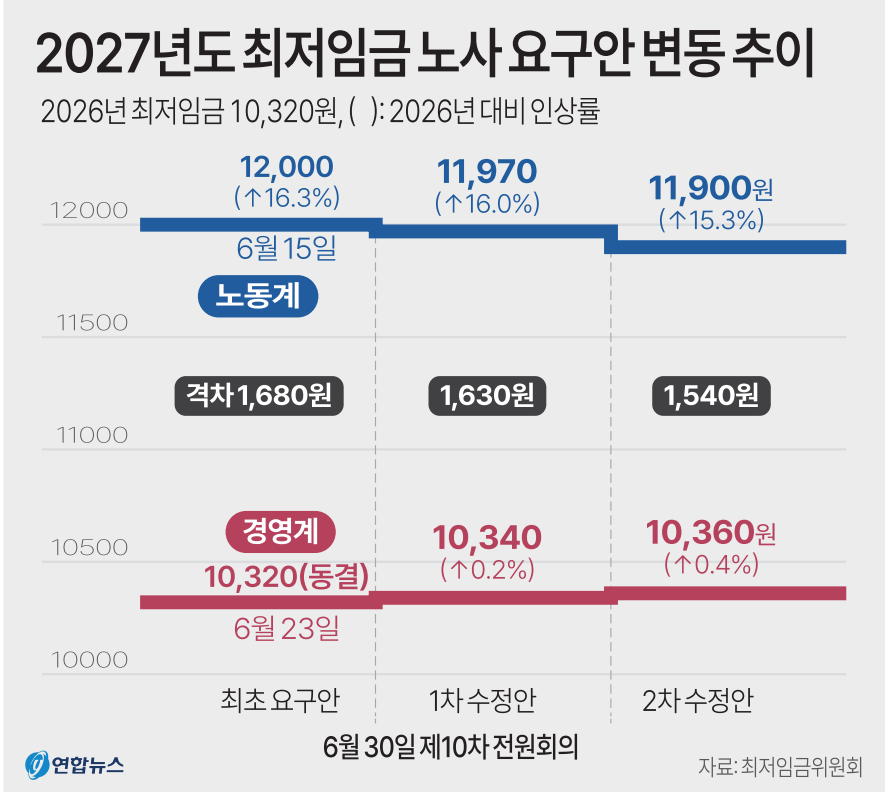
매머드급 국제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행정이나 관련 기관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를 제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18회 국제 기독의사 및 치과의사 세계대회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부영그룹 제주부영 청소년수련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제기독의사치과의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37개국 1300여 명의 의사 및 치과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기독의사치과의사회는 세계 107개국에서 6만여 명의 의사와 치과의사가 가입한 국제 의료인 단체다. 4년 주기로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회 컨퍼런스에서는 의료 현안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정책 참여 방안을

주제로 모두 7개 세션이 진행됐다. 의료 접근성 개선을 비롯한 조력 자살과 안락사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낙태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태아 생명 보호와 의료인의 정책 참여 방안 등 주요 의제들이 다뤄졌다.

이번 세계대회는 행사의 취지나 주요 의제를 감안할 때 제주와 결코 무관치 않다. 더욱이 전 세계 137개국에서 참여하는 대형 국제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제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행정당국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사실상 뒷짐 지고 방관하고 있다. 국제행사나 제주를 홍보하려는 일련의 과정이 없었고, 행정적 지원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도정 교체가 업무 공백인지 아니면 격이 낮은 행사라고 무시한 건지 몰라도 차려놓은 밥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픽 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옥 편집국장 고 대 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제주 동부지역 안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



고 창 준
제주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장

제주 동부지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동부소방서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난 3월 동부지역 6개 읍·면 마을이장을 지역 안전리더로 지정하고, 소방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취약시기별 지역 내 안전사고 현황자료 및 재난 출동 조치 결과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소방 시책 유대감을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극대화하고 있다.

둘째, 지역 농가의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성산·위미·구좌 등 지역농협과 농가안전 협력 사업을 전개해 농가 130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또는 전기화재예방 소화패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최근에는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를 준공해 재난 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출동과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지역 안전 순찰 등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성산을 신산리·난산리 2개 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지정 현판을 게시하고 마을 이장을 마을안전관리관으로 위촉했다.

소방과 의용소방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때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망이 만들어진 다. 동부소방서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제주 동부지역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들개떼의 공격, 인간이 자초했다

산책길에 들개들이 종종 목격된다. 서너 마리가 무리를 지어 하천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관찰됐다. 얼마 전에는 산책로에서 이들과 맞닥뜨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이들의 공격성이 달한 데다 동반한 반려견이 있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털색과 상태, 목줄조차 없는 것으로 미뤄 유기견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며칠 전 서귀포시 대정읍 일파리에서는 염소가 들개에 물려 다리가 골절됐다. 농장에서 기르는 닭·오리 등이 100마리 넘게 죽거나 다쳤다. 반려견이 들개에 물려 죽은 일도 있었다. 한 주민은 송아지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마늘 등 농작물이 훼손되는 피해도 적잖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제주시 구좌읍 지역에 들개떼가 출몰, 주민들

을 불안에 떨게 했다. 가축을 공격하거나 농작물을 파헤치는 바람에 피해도 적잖았다. 이들은 중산간에서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산간에 서식하는 들개는 2000여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인간들이 자초한 책임이 크다. 마음에 안 든다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유기하면서 빚어진 일들이다. 포획과 병행해 유기·유실을 막을 법·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식별을 강화·확대해 유기·유실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유기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할 시점이다. 더불어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하나 된 노력 없이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갈 수 없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방 서동성(1962. 07. 16. 생)
- 최후주소 : 서귀포시 동흥서로 10-10, 104동 303호 (동흥동, 제이원파크)

상기자는 2026년 3월 1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6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6노단26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람에,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서귀포시 동흥서로 10-10, 104동 303호 (동흥동, 제이원파크)

2026. 7. 3.

공고인 (상속한정승인자) 현지혜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지는 경우
- ◆ 소유권 이전 분등시 승송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트백이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혈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 나 장 의 사
616-08-85402